다산포럼

4·19를 지나며

김정남
언론인

"그 숱한 젊은이들 가운데 내 딸이 끼어있지 않다는 사실. 내가 네게 바라는 것은 '비굴한 행복'보다 '당당한 불행'을 사랑할 줄 아는 여성이 되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서울의 거리가 온통 너와 같은 젊은 세대의 불길로 거세게 타오를 때, 옥아!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그 피의 폭풍이 강산을 휩쓸고 마침내 낡고 썩은 것들이 너희 젊음 앞에 굴복하고만 그 시각에 나의 피를 받은 너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더냐? 그 불덩어리들 속에 타오르는 심장의 핏빛이 네 피와는 다르더란 말이냐? 그 암흑을 밀어나가는 북소리들이 네 목소리와는 다르더란 말이냐? 너는 정녕 그 젊은 기수들 속에 네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애인 한 사람 없었더란 말이냐?

서글픈 일이다. 분한 일이다. 너는 네 젊음을 스스로 모독한 시대의 고아가 되고 말았구나! 어찌 네 가슴에 뺏지를 달고 이 태양 아래 활보할 수 있으랴! 총탄에 넘어진 아들 딸을 가진 부모들의 비통함보다 털끝 하나 옷 자락 하나 찢기지 않은 너를 딸로 가진 이 애비의 괴로움이 더 깊고 크구나.

인옥아! 어서 뺏지를 떼고 교문을 나와 병원으로 달려가거라. 죄인과 같은 부끄러움과 겸손한 태도로 아직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그 젊은 영웅들 앞에 네 피를 아낌없이 쏟아라. 그 젊은이들이 너 같은 여자의 피라도 받아준다면."

이 글은 1960년 4·19혁명 직후, 목포에 사는 학부형이 서울에서 여대에 다니던 자신의 딸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이다. 그해 4월 말, 일간지에 게재된 이 편짓글은 4.19와 관련해서 쓰인 어떠한 글보다도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우리는 지금 53년 전, 4·19혁명의 그 기간을 지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해 4월18일에서 26일까지의 기간만큼 숨가쁘고 감격스런 시간은 없을 것이다. 4월18일의 고려대 시위로부터 4·19와 4·25 교수단시위, 4·26 이승만 하야성명으로 이어진 1주일은 한국사에서는 물론 세계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장엄한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혁명권을 담보로 존립한다. 우리 세대는 4·19와의 인연이 각별하다. 나 개인적으로도 4·19와는 사연이 많다. 4·19혁명이 일어나던 그 해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3·15부정선거 조짐이 짙어지던 2월28일, 대구에서 경북고등학교 시위가 일어난 뒤를 이어 3월8일, 마침내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학년의 주도하에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심전심으로 떨쳐 일어나 거리에 나섰는데, 구호를 외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손은 불끈 쥐어지고, 목에서는 무언가 치밀어 올라 목이 메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입에서는 말이 울음이 됐다. 슬픔과 환희 같은 것이 한꺼번에 범벅이 돼 벅차 올라오던 그때의 감정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조지훈의 시처럼 "그것은 천리였다/그저 터졌을 뿐/터지지 않을 수 없었을 뿐"인 순수한 정의의 감정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아마도 맹자가 말하는 인간본성으로서의 수오지심(羞惡之心)이 필경 이런 것일 거라고 나는 믿는다.

올해 우리는 다니던 학교 교정에 '3·8민주의거비'를 우리 손으로 다시 세웠다. "1960년 3월8일/순정한 정의의 함성이/침묵하던 시대와 강산을 흔들어 깨워/마침내 4·19혁명으로 이어지게 했으니/그 의기 높고도 장했다./여기를 거쳐가는 대능의 젊은 이여/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그날의 용기를 되새겨/항상 깨어있어라"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정부를 폐지할 수 있는 국민의 혁명권을 담보로 하여 존립한다. 4·19는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국민이 혁명권을 발동하여 국민이 원하지 아니하는 정치권력을 폐지한 장엄한 국민혁명이었다. 4·19혁명은 헌법전문의 지향과 그 제1조가 '민주공화국'인 한 우리가 반드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정신적 고향이자 시원(始源)이요, 이루어내야 할 이상이자 목표이며, 민족의 정기이자 생명이다.

4·19를 짓밟고 그 정신을 유린하고 유폐시킨 5.16군사쿠데타 이후 30여 년에 걸친 군사독재 기간 내내, 해마다 4월은 잔인한 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4·19 제 몇선언이 해마다 나오고 백기완은 4·19영령이 있다면 돌아와 탑을 부수라고 외치기도 했다.

새정부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5·16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역사의식도, 영혼도 없는 구차한 장관들을 보면서, 4·19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서글픈 심사를 금할 수 없었다. "4월의 하늘은 이토록 청명한데, 우리를 둘러싼 대기는 어이 이처럼 암울한가(1963년 4월19일, 서울대 4.19 제4선언문)"

양동옥의 S 스토리

여성의 No가 정말 No입니까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한 남성이 "여성의 No가 정말 No입니까?"라고 궁금한 표정으로 묻는다. 요컨대 그의 얘기는 만난 기간도 어느 정도 됐고 서로 가까워졌다고 판단해서 상대방에게 성행동을 시도했는데 상대방이 싫다며 거절한다면, 그 '싫다'는 곧이곧대로 싫은 것인지 아니면 좋으면서 튕기는 것인지 알고 싶다는 것이다.

남성의 성적 접근에 여성이 '싫다'고 표현할 때, 많은 사람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성이 '허울뿐인 혹은 명목상의 거절(token resistance)'을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성 역시 속으로는 남성의 성적 접근을 바라며 환영하지만, 그러한 욕망을 숨긴 채 겉으로는 싫다고 표현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믿음은 전통적인 성 각본(sexual script)에서 비롯된다. 즉 성행동에서 여성의 역할은 남성의 성적 접근에 거부 또는 저항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남성의 역할은 여성의 저항에도 자신의 성적 접근을 고수하는 것이다.

포르노그래피, 영화, 드라마 속의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보자. 한 여성이 남성의 성적 접근을 거부하지만, 남성이 그녀의 저항을 무시하고 더 강하게 돌진했을 때 오히려 여성의 성적 흥분은 높아지는 것처럼 표현된다. 이처럼 대중매체 속 왜곡된 성 각본에 의해 여성의 거절은 '명목상의 거절'로 인식되고, 이것을 내면화한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에 여성이 거절하거나 저항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성은 남성의 성적 접근에 명목상의 거절, 즉 좋으면서 싫다고 하는 것일까? 최근에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필자가 이 주제를 연구해 보았다. '한 여성이 자신과 성관계를 원하는 한 남성과 함께 있다. 여성 또한 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 하지만 성관계를 할 충분한 생각이 있음에도, 그 여성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성에게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여성이 성관계를 원하면서도 싫다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자유롭게 쓰게 하였다.

결과는 흥미로우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였다. 남성의 성적 접근에 대한 여성의 '명목상의 거절'은 남녀 관계의 미묘한 심리싸움의 일종으로 여성이 성적 우위를 차지하고 남성을 조종하려는 의도, 즉 속된 말로 밀당(밀고 당기기)을 위한 튕기기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왜곡된 믿음을 깨부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여성이 성관계를 원하면서도 싫다고 표현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요인이었다. 남녀 모두 가장 많이 응답한 이유는 바로 '가벼운 또는 쉬운 여자로 보이는 것' 때문이었다. 이것은 여성의 성욕은 억누르거나 순결을 지키는 것이 미덕이라는 교육이나 사회적 통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성이 '좋다'라고 표현했을 때 상대방에게 밝히는 여자로 인식될 수 있으며 정숙하지 못한 여자가 돼 가치가 깎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관계의 불확실성'을 많이 언급했다. 상대방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없으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도를 나가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견해다. 만약 그 순간의 성적 충동에 휩싸여 성관계를 갖게 되면, 후회할 가능성이 크며 성관계 이후 여성에 대한 애정이나 열정이 식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아니라 머리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문제로 여성들이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하는 사례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두 사람이 동의하여 성관계를 갖더라고 피임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임신 가능성이 있으며 원하지 않는 임신과 낙태의 육체적·심리적 고통은 여성에게 더 큰 짐으로 다가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남성을 조정'하려는 의도에서 성적으로 안달하게 혹은 애걸하게 하거나 더 강하게 이끌어주기를 원해서 좋으면서 싫다고 표현한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이런 응답은 남녀 모두에게서 매우 낮았다.

그렇다면 남성의 성적 접근에 여성이 싫다고 말하는 것은 '명목상의 거절'이라기보다는 여성은 정숙해야 한다는 교육이나 사회적 통념의 영향, 두 사람의 관계나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같이 실제로 'No'의 의미로 'No'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은 성관계를 원하면서도 겉으로는 거짓된 표현을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성의 진정한 'No'를 '명목상의 거절'로 오인하여 데이트 강간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남녀 관계에서 사랑과 믿음은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는데, 이것은 상대방을 향한 시간과 정신적 투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상대방이 거절한 의미를 파악하려 애쓰기 전에 내가 현재 상대방에게 사랑과 신뢰를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이다.

기고

안전하게 마시는 봄철 藥水

강영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가로수 이파리가 연둣빛으로 물들고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봄이다. 부푼 마음으로 오랜만에 무등산에 올랐다. 산에서 내려보는 전망과 시원한 바람이 등산의 노고를 충분히 보상해 주었다. 흙냄새를 맡으며 내려오는 길에 마주한 들꽃이 싱그러움을 더해 주었다. 그리고 약수 한 잔. 산에서 맛보는 약수는 자연이 주는 보약이다. 그런데 이 약수를 마셔도 괜찮을까? 이런 궁금증은 누구나 한번쯤은 가져봤을 것이다.

약수란 유해성분이 없으며 인체에 유익한 적당량의 미네랄이 들어있고, 산소와 탄산가스가 충분히 녹아있는 약알칼리성의 시원한 용천수를 말한다. 특히 철분과 탄산 등의 무기질이 함유된 약수는 각종 성인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동의보감에 보면 좋은 물을 마시면 질병을 없앨 수 있다는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 이른 새벽에 처음으로 길어온 정화수는 여러 가지 출혈증상 치료에 아주 좋으며, 얼굴빛을 좋아지게 하고, 술을 마신 뒤에 생긴 설사도 낫게 한다.

우리 시에서는 하루 50인 이상 이용하는 약수터 13곳을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1년에 6번 이상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강우 직후 또는 갈수기 등 미생물의 오염이 우려되거나 이용자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수질검사를 한 뒤 결과를 발표한다. 하지만 하루 이용자 수가 50인 미만인 약수터는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수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월 한두 차례 우리 지역에서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9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동구 지산유원지 골프장 아래 지점과 서구 금당산(풍암정 아래) 2곳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했고, 동구 지산유원지 철탑 아래, 서구 중앙공원 내, 남구 옥천사, (구)과학고 뒷산, 진월동 대주 1차 아파트 뒤편, 북구 삼각산 등산로와 자연생태공원(광주댐) 7곳은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등산객 왕래가 빈번하고, 주변 환경이 동물의 분변 등에 오염되어 있다가 강우와 함께 대장균군 등이 유입되어 검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들 약수터는 오염원 제거, 시설 보강, 소독 등을 통해 관리하거나, 사용금지 또는 시설폐쇄 등 조치를 취하고 위해성을 알리는 게 필요하다.

또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2곳의 약수터에서는 생체활성물질로 알려진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 함량이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 샘물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곳을 먹는 물 공동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정기 수질검사, 청소, 시설정비 등 관리를 하며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약수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첫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의 이용을 자제하고,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곳에서만 음용해야 한다. 둘째, 냉장 보관하고, 2~3일 내에 소비해야 하며 하절기에 끓여서 마셔야 한다. 셋째, 약수통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내부가 깨끗하지 않으면 세균에 오염된 약수를 마시게 된다. 넷째, 40mm이상 비가 내리면 1주일 후에 약수터를 이용한다. 비 온 후 지표면에 흐르는 표층수가 유입될 경우 일시적으로 탁도와 세균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약수에는 종류가 많고 약리적인 효과 또한 다양하다. '동의보감'에 서술된 물의 종류를 보더라도 물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다. 잠시나마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약수 한 모금 들이키며 행복을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정부, 광양항 활성화에 '찬물' 끼얹어서야

광양항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해온 광양·부산항 중심의 '투포트(Two-Port) 항만 정책'을 사실상 부산항 원포트 계획을 내세워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국제물류 거점 육성의 투포트 시스템이 무너지면 광양항은 부산항에 치여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수부가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첫 업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과 지역경제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항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배후단지 조성과 수산클러스터 등도 함께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양항체제의 한 축이었던 광양항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조차 없었다. '광양항 죽이기'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번 보고에서 해수부가 내놓은 것은 전남에 수산분야를 집중 육성해 수산업을 미래 산업화하겠다는 계획안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전남도의 역점사업과 겹치고, 아이디어를 모방한 프로젝트일 뿐이다. 특히 해수부 산하 핵심 관련기관 9곳 가운데 본청을 전남에 둔 곳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 수산인력개발원 등이 부산에 있는 마당에 수산분야 육성이라는 건 달래기나 생색내기용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추진해온 투포트 정책을 허물어선 안 된다. 광양항은 당초 대중국과 아시아 등지를 겨냥해 건설된 국제적 항만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잘 나가는 항만을 죽여 특정지역에 더 많은 부를 주려는 것은 국민대통합과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호남 인사 소외로 가뜩이나 상실감에 빠져 있는 전남지역민들에게 광양항까지 홀대한다면 반발이 거세질 게 자명하다. 박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양·수산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예산 전남이 전국 꼴찌라니

전남지역 장애인 1명이 받는 예산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고 한다. 장애인 복지 수요가 어느 지역보다 많고, 시설이 크게 노후화돼 있는데도 예산이 이 정도라니 사실상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공개한 '2012년도 지방정부 장애인 예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1인당 예산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많게는 9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1인당 순계 예산액은 제주도가 187만4701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에 이어 대전 166만7551원, 광주는 152만1542원으로 많은 축에 속했다. 반면 전남은 제주도의 절반 수준인 99만4495원에 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로 예산액이 다른 이유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지자체 간 복지 인프라 수준에 차이가 있어 장애인 복지에 접근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다는 데 있다. 제주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장애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법률이나 시책으로 정해진 장애인 복지정책이 기본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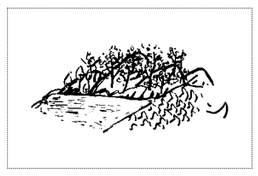
하지만 장애인 복지를 접근 방식이나 수치 분석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산이 줄어들면 복지 지원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장애인들이 느끼는 효용감 또한 떨어질 것이다. 장애인 복지에서조차 전남이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반인보다 더 신경 쓰고 우선해야할 것이 장애인 복지다. 가뜩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그들에게 소외감이라는 이중고를 떠안겨서는 안 된다.

전남도는 장애인 복지 인프라부터 정책까지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프레임부터 재점검해 보길 바란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과감히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복지정책을 재점검하면서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세량의 산벚꽃



"…이 봄,/ 벚꽃이 한순간에 피고/ 또 한순간에 사라져도 기어코 행복할 것이다."(권영부 시 '벚꽃 흩날리다' 중)

이맘 때 '세량'이라는 고유명사에 귀가 번쩍 뜨이고, 몸 세포가 반응한다면 십중팔구 당신은 사진에 관심이 많은 이다.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사진가들이 산벚꽃 피는 이 때에 맞춰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화순 세량제(細良堤)를 찾는다. 광주대와 앵남을 잇는 지방도 817호선 중간쯤에 위치한 세량제는 자그마한 농업용 저수지이지만 사진 동호인들에겐 손꼽아 기다리는 '봄 풍경 일번지'이다.

이곳은 만개한 하얀 산벚꽃과 움트는 버드나무 새싹의 연초록 빛깔이 어우러져 자연 스스로 수채화를 그려낸다. 더욱이 기온차로 인해 물안개가 피고, 바람마저 잠잠해 거울같은 수면이 유지되면 투영되는 이곳 풍경은 무릉도원 그 자체다.

이런 초봄의 풍경에 반해 전국에서 몰려온 사진가들은 이른 새벽부터 둑방에 겹겹이 삼각대를 편 채 시선을 고정한다.

아침 햇살이 서서히 산벚꽃과 버드나무, 물안개를 비추며 연초록 빛깔이 살아날 때가 바로 '매직 아워'(Magic hour)이다. 사진이 '국민적 취미'가 됐음을 절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때는 말 한마디 없이 가벼운 탄성과 셔터소리만 들릴 뿐이다.

올 봄날씨가 변덕스럽다. 곡우인 지난 20일 충청과 경북지역에선 기상관측 이후 77년 만에 가장 늦은 봄눈이 내렸다. 기상이변 속에서도 세량의 산벚꽃은 어김없이 피었다가 세찬 비바람에 꽃잎을 떨구었다.

수많은 사진가들은 절경을 앵글에 담기 위해 세량을 찾지만, 주민 입장에선 이를 마을발전과 연계할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봄 풍경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마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행정당국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이를 통해 앞으로 세량의 봄 풍경이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일조하고, 사진애호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쉼과 치유(healing)의 장소로서 오래오래 보존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2-0195〉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